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정서와 반응의 문화차이: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정재욱¹⁾ 김영주¹⁾ 김보경²⁾ 나진경^{†*}

¹⁾서강대학교

²⁾연세대학교

기존의 심리학 문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보다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분노나 적개심 같은 부적 정서의 표현이 억제된다고 보았다. 개인을 드러내는 표현이 장려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와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덜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정서 표현을 반드시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정서반응을 분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의 불공정 경험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불공정한 시나리오를 읽고 더 큰 분노를 표현하였으며, 상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고, 개선의 중요성 역시 더 크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가 분노 표현의 문화 차이(한국vs미국)를 매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두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서는 분노 표현의 문화 차이가 개선 중요성과 개입의도의 문화 차이로 이어졌다.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정서 표현 및 불공정 경험의 관계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불공정, 정서, 분노, 문화차이

* 이 논문은 2018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과제번호: 2018-22-0108)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제번호: 2019S1A5A80328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최서원(소위 최순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국정 운영에 개입시켰고, 부당한 권력으로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국정농단을 벌인 것을 방조한 것에 대한 국민적 퇴진운동의 결과였다. 박근혜 퇴진 국민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의 한 뉴스 헤드라인은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시민 4,321명 탄핵의견서 현재 제출이었다(경향신문, 2017년 1월 23일).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불의나 불공정 인식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부당함 또는 불공정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라는 집합적 행동을 촉발시켰고, 그에 국회와 사법부가 대통령 파면으로 답하였다. 탄핵 인용 후 3월 10일과 3월 11일 하루 사이 ‘박근혜 탄핵’을 키워드로 검색된 국내 인터넷 뉴스는 약 2만건(네이버 포털 검색결과, 21,191건)이나 될 정도로 많았고, 광화문 등 거리에 나온 국민들은 ‘촛불승리’라며 환호하였다. 이는 국정농단이라는 불공정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숙명여고 입시 비리 사태’와 같은 사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점도 최근 한국인들이 억울함과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9일). 그리고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로 2017년 8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청와대의 국민청원사이트에는 500일 동안 47만 건의 청원과 5600만 건의 동의가 접수되었다(시사인, 2019년 2월 1일). 이처럼 한국인들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매우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될 때는 망설이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기존에 알려진 집합주의 문화의 특성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하며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기 보다는 속으로 삭이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따라서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문화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차원인 개인주의-집합주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분노와 같은 적극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또한 한국과 달리 정서 표현을 권장하는 개인주의 문화(Markus & Kitayama, 1991a, b)에 속하는 미국인들을 연구에 포함하여 정서 반응의 문화 차이를 확인하고 그런 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정서와 문화

정서의 문화 보편성은 심리학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정서가 인간 종의 적응의 산물이라고 보는 진화생물학적 혹은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정서가 문화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보편성을 가정한다. 반면, 정서의 문화 특이성을 주장하는 문화심리학에서는 정서를 사회적 상호과정의 산물로 해석한다(Scher & Wallbott, 1994). 문화마다 다른 사회적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정서도 문화 특이적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Greenwood, 1992).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주관적인 해석이 온전히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맥락 안에서 정서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문화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정운, 2001; Mauro, Sato, & Tucker, 1992). 같은 문화 안에서 공유하는 경험과 해석의 틀 안에서 정서의 해석이 발생하는 것이다(한민, 류승아, 2018).

Hofstede(1980, 1983, 1991) 이후 문화차이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들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로의 구분이다. Hofstede(1980, 1983, 1991)는 66개 국가에 걸쳐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문화의 집합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 분류를 제안하였다. 한 사회를 집합주의 혹은 개인주의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여겨진다. 집합주의 문화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집단 혹은 개인들 간의 관계로 보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사회구성 기본 단위로 여긴다(조공호, 1997).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견해 차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그리고 인간 일반에 대한 인식차이를 가져온다.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a, b)이고 집합적 자기(collective self; Triandis, 1989)관을 갖게 된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황 특이적이지 않은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a, b) 혹은 개인적 자기(private self; Triandis, 1989)관을 갖게 된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행동은 집단의 조화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제된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적극적인 표현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장려된다. 이렇게 두 문화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구성원의 인지, 정서, 동기 제반 활동에서의 차이(Markus & Kitayama, 1991a, b)를 유발하게 된다(조공호, 1997).

문화 유형에 따라 지배적인 정서 역시 달라진다.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공감 같은 타인중심적 정서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분노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에 더 초점을 둔다(Triandis, 1994). 개인주의 문화 안의 독립적 인간관을 지닌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솔직하고 진실한 자기주장 혹은 개인중심적 정서의 표현을 권장한다. 반면 상호의존적 인간관을 지닌 집합주의 문화 안에서 자기중심적 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통제되고 억제된다. 집단 조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노나 적개심 같은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특히 더 통제될 수 있다(한규석, 1991; Levy, 1984; Solomon, 1984). 집합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도 분노 표현이 상대적으로 통제되고 억제되는데, 이런 경향은 민간 의학적 용어로 정의되는 ‘화병’에 잘 드러난다. 한국에서의 화의 개념은 서양과는 달리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병은 화를 낼 수 없거나 화를 내도 풀리지 않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한국만의 진단명으로 서구 정신의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최상진, 이요행, 1995).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화를 유발한 상대가 자신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공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분노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분노 표현이 억제된다. 따라서 한국인은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참거나 내적으로 삭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화병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감정 체계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화병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한국에서의 분노표현은 집합주의 문화권의 정서표현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억제되고 통제된다는 기존 문헌들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기존 정서의 문화차이 연구들은 집합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정서표현이 억제되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일 경우 더 그렇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의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다른 정서표현의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분노의 표출이 집합주의 문화에서 항상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합주의 문화에서도 외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의 표현이 허용되며(Matsumoto, Kudoh, Sherer, & Wallbor, 1988), 객관적 지표(교육 수준 및 직업) 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ark et al., 2013). 또한 집합주의 문화에서 분노표현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와도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Kitayama et al., 2015). 구체적으로 Kitayama 등(2015)은 분노 표현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염증 반응 및 심혈관질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우월감과 자율성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같은 집합주의 문화 안에서도 국가별 정서표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Lee와 Matsumoto (2011)의 실험연구에서 정서(슬픔, 분노)가 유도 되었을 때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들이 얼굴 표정으로 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감정 표현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민과 류승아(2018)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의 차이를 연구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부당한 경험을 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였는지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분노 정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분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58.1% > 미국: 49.3%). 또한, 부당한 사건 경험에 대한 행동 반응은 무행동, 간접토로, 직접 토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주의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무행동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직접토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부당한 상황에 대한 행동반응은 기존 정서표현의 문화차이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정서 표현에 있어서는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분노표현이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한국은 화를 억제하고 삭이는 문화이지만, 불공정한 상황에서는 분노의 표출이 용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민과 류승아(2018)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 표출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개인주의 문화권의 미국인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불공정 경험, 분노와 집합적 행동

사람들의 다양한 정서적인 경험을 정서(emotion)라고 부른다(Matsumoto & Hwang, 2012). 정서는 움직이게 하다는 뜻의 라틴어 *emov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두려울 때 도망가게 하고 화가 날 때 공격하게 하려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최해연, 최종안, 2016). 즐거움 같은 긍정 정서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사건들과 연관되며, 부끄러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 정서는 개인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Lazarus, 1991). 또한 Lazarus(1991)는 개인의 기대에 반하는 사건을 경험할 때 부정 정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중 분노는 외부 초점적(outward-focused) 부정 정서로, 불의/부당함의 책임이 다른 누군가에 있음을 지각할 때 발생한다(Tangney & Dearing, 2002). 즉, 분노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에게 향하는 감정이다(Frijda, 1986). 또한 분노는 높은 수준의 각성을 수반하는 감정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접근지향성과 주로 연관되어 있다(Averill, 1983). 아리스토텔레스(322B.C.E./1926)는 분노에 대해 자신이나 지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지각될 때 생겨나는 복수에 대한 갈망이라고 언급했다(p. 173). 불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역시 분노이다(Clayton, 1992; Mikula, Scherer, & Athenstaedt, 1998). Giner-Sorolla와 Maitner(2012)의 실험연구에서 잠재적 위협집단(테러리스트)이 강한 능력(power: 재력과 군사력)을 가졌을 때보다 불의/부정한 의도(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의도)를 가졌다고 묘사될 때, 사람들은 더 큰 분노를 응답하였다. 또한 대인적 수준(Frijda et al., 1989; Roseman et al., 1994)에서나 집단간 수준(Montada & Schneider, 1989) 모두에서 분노는 불의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행동목표와 관련된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불의에 대항하는 집합적 행동을 동기부여하는데 분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van Zomeren, Postnes, & Spears, 2008). 즉, 분노의 경험 및 표출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함 혹은 불의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부당함과 불의를 빈번하게 경험하며 그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분노를 빈번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의/불공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2018년 12월 26일 기준) '갑질'을 키워드로 검색된 국내 인터넷 뉴스는 약 10만건(네이버 포털 검색결과, 102,674건)으로 그 이전 1년의 결과(네이버 결과, 58,906건)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공정은 한국인들의 삶 속에 가깝게 다가왔다. 어떤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한 풍부한 도식(schema)를 형성하게 되고(Markus, 1977; Schank & Abelson, 1977), 한 번 형성된 도식 중에서도 빈번하게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도식은 자주 활성화 된다(Higgins, King, & Marvin, 1982). 또한 사람들은 활성화된 도식에 맞춰 정보를 처리하고(Fiske & Taylor, 1991; Higgins, Rholes, & Jones, 1977),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North, Hargreaves, & Mckendrick, 1999; Payne, Brown-Iannuzzi, & Loersch, 2016).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불공정 상황에 대한 풍부한 도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정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은 집합주의 문화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문화권의 미국인들보다 불공정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에서 예상되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차이가 연구의 가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기대되는 분노 반응의 차이가 행동 의도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분노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집합적 행동이었다. 불공정 및 집단불이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상대적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Runciman, 1966; Crosby, 1976; Folger, 1987)과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 Turner, 1979)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지각하는 불이익이나 부당함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더하여 집단간 정서 이론(Intergroup emotion theory; Smith, 1993)에서는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수준에서 경험하는 분노 같은 정서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행동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하려 시도한 학자들은(Klandermans, 1997; Simon et al., 1998) 집단구성원의 지각된 효능감(집단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으로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van Zomeren, Spears, Fischer와 Leach(2004)가 집합적 행동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van Zomeren 등(2004)은 Lazarus(1991)의 분류에 따라 정서초점적 대응과 문제초점적 대응 두가지 구분된 경로로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Lazarus(2001)에 따르면 정서초점적 대응은 해당 상황에 나타나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초점적 대응은 해당 상황을 변화, 해결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van Zomeren과 동료들(2004)은 불공정/부당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수준분노를 통한 정서초점적 대응과 집단효능감을 통한 문제초점적 대응 모두를 고려한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대학생 참여자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 결과는 시나리오의 부당함을 외집단보다 내집단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응답자들의 집단수준 분노가 더 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집단수준 분노, 특히 내집단이 부당함을 경험했을 때의 집단수준 분노에 기반한 정서초점적 대응 경로가 집단효능감에 기반한 문제초점적 대응 경로보다 더 일관적으로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하면, van Zomeren과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내집단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나타나는 집단적 분노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대되는 불공정 상황에서의 분노 경험 차이가 행동을 동기화하는 차이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개입 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불공정’을 중심으로 정서반응의 문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조화를 중요시하며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도록 요구되는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표현하는 분노 수준을 개인주의 문화의 미국인들의 응답과 비교하고자 한다. 서신화, 허태균과 한민(2016)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부당한 사건을 경험하여 강한 분노를 느끼지만 자신의 사회적 역할 때문에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가 아닌 억울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이 아닌 타인의 경험에 대한 분노 반응을 측정할 것이다. 둘째, 분노는 부당함과 불의를 경험할 경우 나타나는 정서이기 때문에 분노 경험에서 기대되는 문화 차이가 일상 생활에서 불의/불공정을 경험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셋째, 분노는 행동을 동기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의 문화 차이가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 의지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하기 위하여 개선 중요성과 개입 의도를 측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한 경험을 가정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국인과 미국인

들의 정서 반응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불공정에 대한 정서 반응에서의 문화 차이를 규명하고 그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물론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을 정교화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할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본 연구자들이 탐색적으로 고려한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 불공정 상황에 연관된 상대의 지위가 가질 수 있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문화는 위계 구조에 민감하며(최상진, 2000), 화를 유발한 상대가 공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 사적인 분노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으며(최상진, 이요행, 1995), 사회적 지위와 분노 표현 역시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3).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서 묘사하는 상황도 위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업무 장면과 그렇지 않은 비업무/일상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분노 반응의 문화차이가 이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를 통해 경험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노 정서에서 한국, 미국 응답자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시나리오를 통해 경험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노 정서에서의 문화 차이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3. 시나리오를 통해 경험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 정서의 차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것인가? 즉, 시나리오

에 묘사된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개선 중요성 인식 및 행동의도)에서의 문화차이가 시나리오에 대한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4.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에서 가정한 문화 차이가 시나리오의 종류와 상대방의 지위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인 참여자는 아마존 MTurk을 통해, 한국인 참여자는 국내 온라인 리서치 엠브레인(www.mbrain.com)을 통해 모집하였다. 미국인 참여자는 203명(여자 125명)으로 평균 나이는 37.21세(표준편차=12.80)였고, 한국인 참여자는 247명(여자129명)으로 평균 나이는 39.60세(표준편차=10.80)였다. 최종적으로 450명의 데이터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인 참여자들이 미국인 참여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이가 많았으며, $t(448)=2.15, p=.032, d=0.20$, 여성 참여자의 비율은 한국(52%)에 비해 미국(62%)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1, N=450)=3.96, p=.047$. 하지만, 나이와 성별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문화와의 상호작용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의 차이를 통제하고도 연구의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¹⁾

1)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분노 반응, 개선 중요성, 행동의도, 개인의 불공정 경험 중에서 나이는 개인의 경험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19, p<.001$, 성별은 행동 의도에서만 유의미

측정도구

설문참여자들은 본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의 불공정 경험 시나리오를 읽고 관련 문항들에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주의 깊게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도록 설문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시나리오는 두 종류의 불공정한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하나는 기업 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발생한 경험을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레스토랑 자리예약 과정에서 발생한 경험을 다루었다. 설문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공감할 법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기업 장면과 일반적인 장면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권력의 비대칭적 구조가 명확한 기업 안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지만, 회사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연구대상자를 고려하여 일상적인 장면인 레스토랑 상황을 포함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는 주인공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사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동등하게 조작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갖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요인은 2 (문화: 미국/한국) × 2 (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 2 (상대: 상사/동료) 혼합설계이며 시나리오 종류만이 응답자내변인이다. 시나리오와 문항은 한글과 영어 두 개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글과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에 의해 내용의 동질성을 확인 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한글)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시나리오에 밑줄 친 내용은

한 효과가 있었다, 남: $M=3.66, SD=0.88$ vs. 여: $M=3.48, SD=0.84, t(448)=2.26, p=.024, d=0.21$.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나이와 성별의 문화 간 차이를 통제하여도 연구의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조건에 따라 상사 또는 동료로 기술되었다. 영어 시나리오의 경우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였다.

시나리오 1(회사의 팀 프로젝트)

(김민수는/김민수와 그의 동료 강00는 함께) 팀장으로서 회사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만큼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지난 한달 동안 김민수는 유능하고 존경받을 만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김민수의 팀은 회사의 기대를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민수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그의 상사 최00에게 제출하여, 상사 최00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사 최00는 회사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온 최고 실적자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회사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읽었을 때 김민수는 보고서에 (상사 최00/동료 팀장 강00)가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김민수의 (상사 최00/ 동료 강00)는 프로젝트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의 대부분을 김민수에게 맡겼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 올라온 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년에 임금 인상을 받게 된 사람은 김민수가 아니라 그의 (상사 최00/동료 강00)가 되었다.

시나리오 2(레스토랑 예약)

김영수는 그의 애인과 시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김영수는 이 레스토랑에 자주 가는 단골 손님이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예약은 불가능하고 도착한 순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김영수와 그의 애인은 알맞은 시간에 도착하였고, 운 좋게도 멋진 야경이 보이는 창가 쪽 자리가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연히 웨이터가 그들을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웨이터는 식당 직원들이 자주 다니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자리를 보여주었다. 김영수는 다른 자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웨이터는 창가 테이블이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예약이 불가능한 레스토랑의 방침을 알고 있었기에 김영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썩 좋지 않은 자리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메뉴를 보고 있는 동안 김영수는 그의 (직장 상사인 정00가 사람들과/직장 동료인 김00와 강00 그리고 최00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약된” 자리에 앉았다.

참여자들은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를 차례대로 읽고 각각에 대해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였다.

분노 반응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에서 문화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참여자들 각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개선 중요성

또한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분노 반응에서 기대되는 문화 간 차이가 개선 중요성의 문화차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행동 의도

분노 반응에서 예상되는 문화 간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개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불공정 경험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험을 하는 정도가 가설에서 예상하고 있는 분노 반응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참여자들로 하여금 평소 실생활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경험을 하는지를 4점 척도(1:거의 없음, 2:드물게, 3:종종, 4:매우 자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에서 분노 반응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황과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실생활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관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각 문화별로 표 1에 기술하였다. 이들 변인들에서 나타나는 문화간 차이는 아래의 분석 계획에 따라 검증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관계는 매개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계획

주요 종속 변인인 분노, 개선 중요성, 및 행동의도에서 문화, 시나리오, 상대 지위의 주효과 및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 (문화: 미국/한국) × 2 (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 2 (상대:상사/동료) mixed ANOVA를 먼저 실시하였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피험자내 요인이었고 다른 변인들은 피험자간 요인이었다. 분석 결과 모든 종속 변인에서 상대의 주효과 및 상대를 포함한 그 어떤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상사 조건과 동료 조건에 관계없이 같은 패턴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의 주요 결과에서는 주요 변인들에 대해 상사와 동료 조건을 통합해서 2(문화: 미국/한국) × 2 (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mixed ANOVA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문화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표 1.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국가별)

		평균 (표준편차)	B.	C.	D.	E.	F.	G.
A. 불공정경험	한국	2.78 (0.66)	.09	.13*	.04	.15*	.16*	.17**
	미국	2.65 (0.81)	.20**	.12	.06	.11	.02	.08
B. 분노 (회사)	한국	4.43 (0.65)	1	.62***	.42***	.41***	.35***	.23***
	미국	4.08 (0.99)	1	.43***	.42***	.22**	.06	.09
C. 개선중요성 (회사)	한국	4.36 (0.72)		1	.53***	.31***	.44***	.23***
	미국	4.38 (0.92)		1	.42***	.10	.05	.06
D. 행동의도 (회사)	한국	3.83 (0.79)			1	.31***	.36***	.43***
	미국	3.88 (1.08)			1	.13	.13	.29***
E. 분노 (레스토랑)	한국	3.85 (0.95)				1	.75***	.68***
	미국	3.19 (1.36)				1	.57***	.65***
F. 개선중요성 (레스토랑)	한국	3.95 (0.84)					1	.70***
	미국	3.49 (1.28)					1	.65***
G. 행동의도 (레스토랑)	한국	3.55 (0.90)						1
	미국	2.91 (1.38)						1

* $p < .05$, ** $p < .01$, *** $p < .001$

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문화 차이를 검증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였다. 또한 상대(상사/동료) 요인을 포함하여도 아래 보고된 모든 주요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변하지 않았다. 상대(상사/동료) 요인의 효과는 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종속 변인에서 문화 및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후에는 연구의 주요 가설인 분노의 문화 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가설에서 기대하는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가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분노의 문화 차이가

갖는 함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노 반응의 문화차이가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지를 매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노

연구의 주요 가설인 분노 반응에서의 문화 차이를 검증하고 이런 차이가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상황에 따라 변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2(문화: 미국/한국) × 2(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mixed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피험자내 요인이었고 문화는 피험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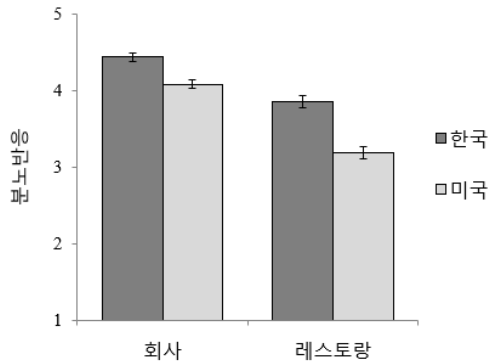


그림 1. 불공정 시나리오를 읽고 응답한 분노.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요인이었다. 분석 결과, 문화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448)=44.54, p<.001, \eta_p^2=.090$, 시나리오 주효과도 유의미 하였다, $F(1, 448)=166.73, p<.001, \eta_p^2=.271$. 그러나 이들 주효과는 문화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제한되었다, $F(1, 448)=6.89, p=.009, \eta_p^2=.015$. 즉,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참여자들은 회사 시나리오($M=4.43$ & $SD=0.65$)와 레스토랑 시나리오($M=3.84$ & $SD=0.95$) 모두에서 미국 참여자들(회사: $M=4.08$ & $SD=0.99$, 레스토랑: $M=3.19$ & $SD=1.36$)에 비해 더 큰 분노를 보고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화차이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회사: 문화차이= $0.35, t(448)=4.55, p<.001, d=0.43$ & 레스토랑: 문화차이= $0.65, t(448)=6.01, p<.001, d=0.57$.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의 참여자들과 미국 참여자들 모두 레스토랑 시나리오에 비해 회사 시나리오를 읽고 더 큰 분노를 경험하였지만, 이런 차이는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 시나리오 차이= $0.59, t(246)=10.19, p<.001$ & 미국: 시나리오 차이= $0.89, t(203)=8.48, p<.001$.

종합하면, 분석 결과는 한국 참여자들이 불

공정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더 큰 분노를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단, 이런 문화 차이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의 효과는 미국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나리오의 불공정 상황에 대해 참여자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응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개선 중요성

다음으로 시나리오에 묘사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분노에서와 같은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2(문화: 미국/한국) × 2(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mixed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448)=9.49, p=.002, \eta_p^2=.021$, 시나리오의 주효과도 유의미 하였다, $F(1, 448)=129.23, p<.001, \eta_p^2=.224$. 그러나 이들 주효과는 문화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제한되었다, $F(1, 448)=17.80, p<.001, \eta_p^2=.038$.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로 문화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시나리오에서는 개선 중요성에서 문화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한국: $M=4.36$ & $SD=0.72$ vs. 미국: $M=4.38$ & $SD=0.92$, 문화차이= $-0.02, t(448)=0.36, p=.718$,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문화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국: $M=3.95$ & $SD=0.84$ vs. 미국: $M=3.49$ & $SD=1.28$, 문화차이= $0.45, t(448)=4.51, p<.001, d=0.43$.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종합논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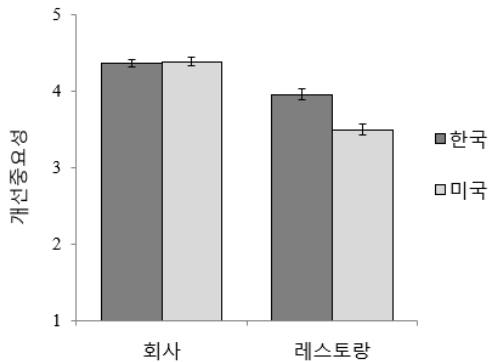


그림 2. 불공정 시나리오를 읽고 응답한 개선중요성.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호작용효과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국 참여자들과 미국 참여자들 모두 레스토랑 시나리오에 비해 회사 시나리오에서 개선 중요성을 높게 평정하였지만 미국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 한국: 시나리오 차이=0.41, $t(246)=7.69, p<.001$ & 미국: 시나리오 차이=0.89, $t(203)=8.23, p<.001$.

정리하면, 개선 중요성에서의 문화 차이는 분노 경험과는 다르게 레스토랑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즉,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참여자들이 미국 참여자들에 비해 개선 중요성을 높게 평정한 반면 회사 시나리오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분노 경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행동 의도

이어서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런 문화 차이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시 2(문화: 미국/한국) × 2(시나리오: 회사/레스토랑) mixed ANOVA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문화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448)=13.86, p<.001, \eta_p^2=.020$, 시나리오의 주효과도 유의미 하였다, $F(1, 448)=120.42, p<.001, \eta_p^2=.221$. 그러나 이들 주효과는 문화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제한되었다, $F(1, 448)=37.06, p<.001, \eta_p^2=.076$.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로 행동의도의 문화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시나리오의 경우 행동의도에서의 문화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M=3.83$ & $SD=0.79$ vs. 미국: $M=3.88$ & $SD=1.08$, 문화차이=-0.05, $t(448)=0.54, p=.589$. 반면에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연구의 가설과 같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의도($M=3.55$ & $SD=0.90$)가 미국 참여자들($M=2.91$ & $SD=1.3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문화차이=0.65, $t(448)=5.98, p<.001, d=0.57$. 상호작용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정리하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모두 레스토랑 시나리오에 비해 회사 시나리오에서 행동의도가 높았으나 이런 차이는 미국에서 더 컸다, 한국: 시나리오 차이=0.28, $t(246)=4.80, p<.001$ & 미국: 시나리오 차이=0.98, $t(203)=9.3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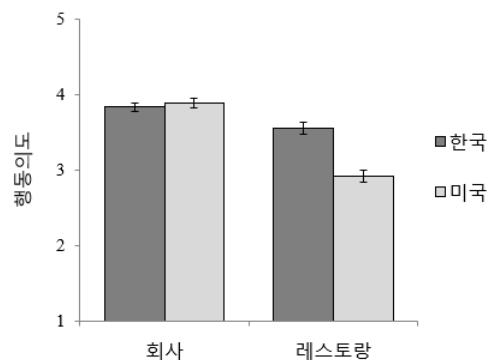


그림 3. 불공정 시나리오를 읽고 응답한 행동의도.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즉, 행동 의도에서의 문화 차이는 개선 중요성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가설에서 상정한 문화 차이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분노 경험과 개선 중요성에서처럼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미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불공정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고 한국인들이 더 큰 분노를 응답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문화 차이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특히 크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참여자들이 미국 참여자들에 비해 상황 개선의 중요성과 행동 의도를 더 높게 보고하여 분노의 문화 차이가 향후 대응 방식의 문화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회사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참여자들과 미국 참여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한 문화의 효과는 모두 회사 상황이 아닌 레스토랑 상황 시나리오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회사 시나리오와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의 차이는 미국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의 효과와 문화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종합논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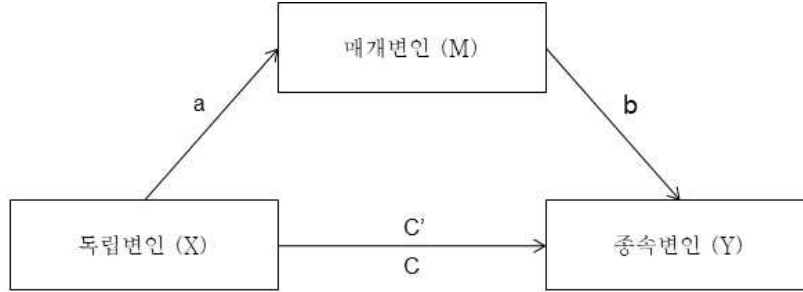
매개 분석

다음으로 불공정 시나리오를 읽고 나타난 분노 반응에서의 문화차이의 원인과 함의를 탐색할 수 있는 일련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문화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에 매개분석은 시나리오별로 따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시한 매개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가 일상생활에서 불공정 상황을 경험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우선 한국 참여자들이 미국 참여자들에 비해 개인적으로 불공정 경험을 더 자주 경험하는 통계적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b=0.07$, $SE=0.03$, $p=.058$ (a path). 그리고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는 문화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분노 반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0.20$, $SE=0.07$, $p=.008$ (b path). 또한 분노 반응의 문화차이는 개인의 불공정 경험을 통제하고 나면, $b=0.33$, $SE=0.05$, $p<.001$ (c path)에서 $b=0.31$, $SE=0.05$, $p<.001$ (c' path)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Preacher와 Hayes (2008)가 개발한 Process procedure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Bootstrap sample=2000),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를 통한 문화의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간접효과=0.013, 95% CI=[0.0004, 0.0386]. 즉, 레스토랑 시나리오를 읽고 분노 반응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의 일부가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분노 반응에서 나타난 문화 차이를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해보았다. 우선, 한국 참여자들이 미국 참여자들보다 레스토랑 시나리오를 읽고 더 큰 분노를 보고하였다, $b=0.33$, $SE=0.05$, $p<.001$ (a path). 이와 같은 분노의 문화차이가 개선 중요성의 문화차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해본 결과, 분노 반응은 문화를 통제하고도 개선 중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0.58$, $SE=0.03$, $p<.001$ (b path). 그리고 개선중요성의 문화차이는 분노를 통제하고 나면, $b=0.23$, $SE=0.05$, $p<.001$ (c path)에서 $b=0.04$, $SE=0.04$, $p=.373$ (c' path)로

표 2. 주요 매개분석 결과



	a	b	c	c'	간접효과 95% CI
문화 → 불공정 경험 → 분노	0.07 (0.03) $p=.058$	0.20 (0.07) $p=.009$	0.33 (0.05) $p<.001$	0.31 (0.05) $p<.001$	0.013 [.0004, .0386]
레스토랑 문화 → 분노 → 개선중요성	0.33 (0.05) $p<.001$	0.58 (0.03) $p<.001$	0.23 (0.05) $p<.001$	0.04 (0.04) $p=.373$	0.191 [.1267, .2664]
문화 → 분노 → 행동의도	0.33 (0.05) $p<.001$	0.66 (0.04) $p<.001$	0.32 (0.05) $p<.001$	0.11 (0.04) $p=.100$	0.214 [.1369, .2974]
문화 → 불공정 경험 → 분노	0.07 (0.03) $p=.058$	0.18 (0.05) $p<.001$	0.18 (0.04) $p<.001$	0.17 (0.04) $p<.001$	0.012 [.0013, .0328]
회사 문화 → 분노 → 개선중요성					
문화 → 분노 → 행동의도					

감소하였다. 또한 Preacher와 Hayes(2008)의 Process procedure를 통해 확인한 결과(Bootstrap sample=2000), 분노를 통한 문화의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개선 중요성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간접효과=0.191, 95% CI=[0.1267, 0.2664]. 마찬가지로 행동의도를 결과 변인으로 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 반응은 문화를 통제하고도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b=0.66$, $SE=0.04$, $p<.001$ (b path), 행동 의도의 문화차이는 분노를 통제하면, $b=0.32$, $SE=0.05$, $p<.001$ (c path)에서 $b=0.11$, $SE=0.04$, $p=.100$ (c' path)로 감소하였다. 또한 분노를 통한 문화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Bootstrap sample=2000), 간접효과=0.214, 95% CI=[0.1369, 0.2974]. 즉, 개선 중요성과 행동의도의 문화차이는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에 의

해 매개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문화에 따른 불공정의 경험의 차이가 분노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에 따라 개선 중요성과 행동 의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Process procedure(Preacher & Hayes, 2008)의 이중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선중요성과 행동 의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다, 문화→불공정 경험→분노→개선 중요성: 간접효과=.0076, 95% CI=[0.0002, 0.0242] & 문화→불공정 경험→분노→행동의도: 간접효과=0.0084, 95% CI=[0.0003, 0.0267]. 즉,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한 한국인들은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불공정 상황에서 분노를 더 많이 느끼며, 이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회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사 시나리오를 읽고 분노를 느낀 정도에서 나타난 문화 차이가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 상황을 경험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한국 참여자들은 미국 참여자들에 비해 개인적으로 불공정 경험을 더 자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통계적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b=0.07$, $SE=0.03$, $p=.058$ (a path). 그리고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는 문화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회사 시나리오에서 느낀 분노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0.18$, $SE=0.05$, $p=.001$ (b path). 또한 분노 반응의 문화차이는 개인의 불공정 경험을 통제하면, $b=0.18$, $SE=0.04$, $p<.001$ (c path)에서 $b=0.17$, $SE=0.04$, $p<.001$ (c' path)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procedure(Preacher & Hayes, 2008)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Bootstrap sample=2000)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를 통한 문화의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간접효과=0.012, 95% CI[.0013, .0328]. 즉, 회사 시나리오에서도 역시 분노 경험의 문화 차이가 개인의 불공정 경험 정도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었다. 회사 시나리오의 경우 개선 중요성과 행동 의도에서 문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문화 차이에 대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문화차이가 불공정 경험을 통해 분노로 이어져, 개선 중요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모형도 검증하지 않았다.

매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레스토랑 시나리오의 경우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가 불공정 상황을 경험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었고, 분노 반응은 다시 개선 중요성과 행동 의도에서

의 문화 차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불공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노 반응이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도록 동기화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사 시나리오의 경우는 분노 경험의 문화 차이가 개인의 불공정 경험에 의해 매개되어 연구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개선 중요성과 행동 의도에서는 문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의 매개 모형을 검증하지 못했다.

논 의

최근 뉴스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회사 창업주의 친척이 직원에게 갑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라인 상의 댓글을 통해 직접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여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공정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의 문화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정서 표현이 억제되며 특히 부정 정서일 경우 더 그렇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집합주의 문화 안에서도 한국의 반응이 기존 이론대로 관찰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한민, 류승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당함 또는 불공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분노 반응의 정도를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서 한국과 대비되는 미국인들의 반응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불공정한 시나리

오를 읽고 응답한 분노 응답에서 비교적 일관된 문화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공정한 상황을 기술한 시나리오를 읽고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큰 분노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 차이는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 분노 반응의 문화 차이가 개선 중요성과 개입의도 응답의 차이로 이어지는 매개 모형을 레스토랑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하여 인지, 행동적 대응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부정적 정서 표현이 억제된다는 기존 문헌(Markus & Kitayama, 1991a; Matsumoto & Hwang, 2010; Triandis, 1989)과 달리 한국인의 분노 표현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노의 표현이 용인되고(Matsumoto et al., 1988; Park et al., 2013) 나아가 분노의 표현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Kitayama et al., 2015) 최근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 연구와 함께 본 연구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억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명제로는 문화와 정서 표현의 다채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심리 과정에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때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에 근거한 일반론적인 설명보다는 개인주의-집합주의가 개인의 행동 및 심리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방식과 양상(Na, Grossmann, Varnum, Kitayama, & Nisbett, 2010)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도 있음을 시사한다(한민, 류승아, 2018).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왜 한국인 참여자들이 미국인 참여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더 큰 분노를 보고 하였을까? 한국의 문화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적응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부정적 경험을 하더라도 부적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다(조궁호, 1999; 최상진, 김기범, 1999).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억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다(서신화, 허태균, 한민, 2016). 이런 이유로 사회적 관계나 역할에 따른 부담감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경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용했지만, 본인의 실제 경험에 관해서는 문화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매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미국인들보다 더 큰 분노를 보고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도식(schema)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그런 도식이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식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Fiske & Taylor, 1991; Higgins, King, & Marvin, 1982; Markus, 1977; Schank & Abelson, 1977). 따라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풍부한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도식에 따라 목표의 좌절을 경험하고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한 문항은 불공정 경험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미국보다 한국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단순히 주관적 경험지각 응답만 한국에서 높게 수집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ransparency.org)에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제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보면, 본 연구의 주관적 불공정경험의 응답차이는 일정 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부패지수는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정치인 같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대한 부패 지각수준을 나타낸 점수이다. 지표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0점에 가까울수록 국가를 부패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180개 국가들의 지표평균값은 43점이며, 대한민국은 54점으로 51번째 청렴한 것으로 그리고 미국은 75점으로 16번째로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CPI 미국 71점, 한국 57점). 국제부패지수는 공공부분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보다 낮은 한국의 국제부패지수 값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주관적 불공정 경험 지각 역시 높게 응답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불공정 경험의 응답차이가 실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서만 차이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불공정경험정도의 차이가 미국인과 한국인에게서 관찰되는 분노 표현에서의 문화 차이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결과 역시 관찰되었다. 첫째, 탐색적 요인으로 투입하였던 상사/동료 조건의 그 어떤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계 구조에 민감한 한국 문화의 특징(최상진, 2000)과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분노의 표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Park et al., 2013)에 근거해서 시나리오 상황의 상대방 지위를 조작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조작의 강도가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경험을 묘사한 시나리오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이 지위의 차이를 실감할 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분노 반응에서는 연구에서 예상한 문화 차이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관찰되었지만 그 크기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컸다. 개선 중요성과 개입 의도에서도 이런 차이가 관찰되어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문화 차이가 유의미하였지만 회사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즉, 연구에서 예상했던 문화 차이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레스토랑 시나리오와 회사 시나리오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업적 가로채기)에 비해 레스토랑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예외적인 식당 예약)은 예약을 예외적으로 허락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도식(schema)의 효과가 크다는 점(Fiske & Talyor, 1991) 감안하면, 빈번한 경험을 통해 불공정 상황에 대한 풍부한 도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미국인들의 차이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 크게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해석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성을 비롯하여 시나리오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들을 추후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의 효과가 있었지만, 레스토랑 시나리오에서는 분노 경험의 문화 차이가 그 이후의 대응 양식에서의 문화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느낀 더 강한 분노를 매개로 하여, 미국인들에 비해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황 개선을 위해 개입하려는 의도도 더 강하였다. 이것은 불공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분노가 집단 행동의 원인임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van Zomeren et al., 2004, van Zomeren, Postnes, & Spears, 2008). 다만 가상의 시나리오와 응답자의 자기보고 설문을 통한 연구의 특성상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향이 실제 개입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지난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 낸 사실을 통해 상황개선 의향을 실제 행동참여까지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청원을 등록하고, 등록된 청원에 대해 동

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 불공정에 대한 반응으로 상황 개입 의지에 더하여 실제 개입 행동의 참여까지 측정한다면 시나리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집단내 조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집합주의 문화의 특징이 본 연구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유를 더욱 면밀히 검색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매개 분석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정도와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현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우리 사회의 조화를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집합주의 문화의 사람들이 내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Hui, Triandis, & Yee, 1991), 불공정을 우리 사회, 즉 내집단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더 강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비교적 최근 집단행동의 결과로 인한 사회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분노 반응으로 더 적극적인 상황 개입의지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참여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상황의 변화 가능성 지각 및 기대와 같은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볼 가치가 있는 변인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과 행동의향만을 측정해서 실제 분노 표현과 행동참여까지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정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그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 반응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고 불공정 경험의 빈도가 높지 않은 문화권의 사람들을 비교 연구한다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경험의 정도가 갖는 효과를 보다 엄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노의 문화 차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예상한 불공정 경험의 정도를 분노 반응 보다 더 늦게 측정하도록 설문을 구성한 것도 연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불공정 경험을 하는 정도는 측정 시점의 영향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설문을 구성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묘사한 상황을 한국, 미국 참여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공정 경험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 문화 차이는 묘사된 상황에 대한 불공정 정도를 다르게 지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가설에서 가정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불공정한 상황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불공정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에서도 문화 차이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본 연구에서 보고한 문화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빈번한 불공정한 경험이 불공정 상황에

대한 풍부한 도식(schema)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런 차이에 근거하여 문화 차이를 설명하였지만 도식의 발달 정도 및 접근 가능성을 실제 측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각 시나리오 상황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도식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차이를 도식을 고려하여 분석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보고한 문화 차이에 관련된 도식의 효과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의 분노 중 불공정에 대한 반응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일반적인 분노표현이 증가했는지 특별히 불공정에 대한 분노표현만 증가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이 분노 표현을 억제하는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불공정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의 미국인들에 비해 더 큰 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런 문화 차이가 관찰되는 이유와 그 함의를 매개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 표현이 일반적으로 억제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도 상황에 따라 분노 표현이 허용된다는 최근의 문화 심리 연구 결과들(Kitayama et al., 2015; Matsumoto, Yoo, & Chung, 2010)을 확장시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불공정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7. 1. 23).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시민4321명 ‘탄핵의견서’ 현재 제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2240005 에서 검색
- 김정운 (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 서신화, 허태균, 한민 (2016). 억울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643-674
- 시사인 (2019. 2. 1).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no=33877> 에서 검색
- 연합뉴스 (2017. 3. 19). 닐슨 “한국인 80%, 사회 공정하지 않다 생각”. <https://www.yna.co.kr/view/AKR20170309081400030> 에서 검색
- 조공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6(2), 1-43.
- 조공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호, 327-338.
- 최해연, 최종안 (2016). 한국인의 정서 구조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89-114.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민, 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 Aristotle. (322B.C.E./1926). *Rhetoric*. In Aristotle in 23 volumes (Vol. 22, J. H. Freese, Trans.). London, England: William Heinemann.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Clayton, S. D. (1992). The experience of injustice: Som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Social Justice Research*, 5, 71-91.
- Crosby, F. J. (1976). A model of egot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 85-113.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olger, R. (1987). Reformulating the 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 model. In J. C. Masters & W. P. Smith (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 (pp.183-215). London Erlbaum.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jda, N. H. (1986).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9-358.
- Frijda, N. H., Kuipers, P., & ter Schure, E., (1989). Relations among emotions, appraisals, and emotional action readines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212-228.
- Giner-Sorolla R. & Maitner, A. T. (2012). Angry at the unjust, scared of the powerful: Emotional responses to terrorist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8), 1069-1082.
- Greenwood, J. D. (1992). The social constitution of emotion. *New Ideas in Psychology*, 10, 1-18.
- Higgins, E. T., King, G. A., & Mavin, G. H. (1982).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and subjective impressions and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35-47.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 (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83).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 B. Dero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iscation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335-355).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Hui, C. H., Triandis, H. C., & Yee, C. (1991). Cultural differences in reward allocation: Is collectivism the expla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45-157(18)
- Kitayama, S., Park, J., Boylan, J. M., Miyamoto, Y., Levine, C. S., Markus, H. R., . . . Ryff, C. D. (2015). Expression of Anger and Ill Health in Two Cultures: An Examination of Inflammation and Cardiovascular Risk. *Psychological Science*, 26(2), 211-220. doi: 10.1177/0956797614561268
- Klanderman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2001). Relational meaning and discrete emotions, In K. R.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 (Eds.),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pp.37-67).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Y. J., & Matsumoto, Y. (2011). Emotional display rules of Japanese and Koreans, *Shinrigaku Kenkyu*, 82, 415-412.
- Levy, R. I. (1984). The emo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K. R. Scherer & P.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pp.397-412). Hillsdale, NJ: Erlbaum.
- Markus, H. R.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pp.18-48). New York: Springer-Verlag.
- Matsumoto, D. & Hwang, H. S. (2012). Culture and emotion: The Integration of biological

- and cultural contribu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1), 91-118.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3), 267-286.
- Matsumoto D., Yoo S.H., Chung J. (2010). The Expression of Anger Across Cultures. In: Potegal M., Stemmler G., Spielberger C.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Anger*. Springer, New York, NY.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01-317.
- Mikula, G., Scherer, K. R., & Athenstaedt, U. (1998). The role of injustice in the elicitation of differential emotional re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7), 769-783.
- Montada, L., & Schneider, A. (1989). Justice and emotional reactions to the disadvantaged. *Social Justice Research*, 3, 313-334.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W.,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14), 6192-6197.
- North, A. C., Hargreaves, D. J., & McKendrick, J. (1999). The influence of in-store music on wine selec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2), 271-276.
- Park, J., Kitayama, S., Markus, H. R., Coe, C. L., Miyamoto, Y., Karasawa, M., . . . Ryff, C. D. (2013). Social status and anger expression: The cultural moderation hypothesis. *Emotion*, 13, 1122-1131. doi:10.1037/a0034273
- Payne, B. K., Brown-Iannuzzi, J. L., & Loersch, C. (2016). Replicable effects of primes on human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5(10), 1269-1279.
- Preacher, K., & Hayes, A.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40, 879-891.
- Roseman, I. J., Wiest, C., & Swartz, T. S. (1994). Phenomenology, behavior, and goals differentiate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06-221.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ank, R., & Abelson, R. P.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cherer, K. R., & Wallbott, H. G. (1994). Evidence for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differential emotion response patte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10-328.
- Simon, B., Loewy, M., Sturmer, S., Weber, U., Freytag, P., Habig, C., et al. (1998). Collective identification and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46-658.
- Smith, E. R. (1993). Social identity and social

- emotions: Toward new conceptualizations of prejudice. In D. M. Mackie & D. L.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pp.297-31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olomon, R. C. (1984). Getting angry: The Hamesian theory of emotion in anthropology.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s i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van Zomeren M., Spears, R., Fischer, A. H., & Leach C. (2004).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explaining collective action tendencies through group-based anger and group effic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5), 649-664.
- van Zomeren, M., Postnes, T., & Spears, R. (2008). Toward an integrativ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A Quantitative research synthesis of three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34, 504-535.

1차원고접수 : 2019. 06. 03.
2차원고접수 : 2019. 08. 05.
최종게재결정 : 2019. 09. 26.

Cultural Differences in Response to Unfairness: A Study of Korea and the US

Jung Jaewuk¹⁾

Kim Youngju¹⁾

Kim Bo Kyung²⁾

Na Jinkyung¹⁾

¹⁾Sogang University

²⁾Yonsei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in cultural psychology shows that the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in particular, anger tends to be socially regulated in collectivistic cultures(e.g., Korea) than in individualistic cultures(e.g., the US) as anger can be detrimental to social harmony. However, an emerging stream of literature suggests that Koreans are allowed to express anger in certain situations. Building on this line of literature, the authors reasoned that Koreans would express anger in response to social unfairness more than Americans because Koreans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in social justice these days. Consistent with the reasoning, Korean participants expressed more anger than did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fter reading two hypothetical vignettes describing unfairness. Also, the cultural difference in anger expression was mediated by how much they experienced unfairness in their daily life and also by how important they believed it was to improve social justice. Furthermore, the results in one out of two scenarios showe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in anger expression was closely linked to the corresponding differences in how important they believed it would be to improve social justice as well as how willing they would be to fight against unfairne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unfair, emotion, anger, cultural difference